

‘문학’ 개념의 역사¹⁾

김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문학’과 전통적인 ‘문학’의 의미는 개념적으로 서로 다르다. 오늘날 ‘문학’이 언어 예술로서의 ‘literature’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면, 전통 한국 사회에서 ‘문학’은 학식 일반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서 ‘문’이나 ‘학문’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 문학 장르를 구분하는 방법도 판이하게 달랐다. 오늘날 산문 문학의 장르는 소설, 수필, 희곡 등으로 구분되지만, 전통 사회의 산문 장르는 전(傳), 찬(讚), 논(論), 설(設), 송(頌), 서(序), 표(表) 등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문종(문체·장르)으로 구분되었다. 이 같은 구분법의 차이는 근대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문학이라는 말을 둘러싼 개념의 종합적인 체계가 서로 이질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재의 ‘문학’은 음악, 미술, 연극과 같은 병렬 개념, 예술과 같은 상위 개념, 시, 소설, 희곡과 같은 하위 개념, 역사, 철학 등의 대응 개념, 미(美, beauty), 정(情, feeling)과 같은 설명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 ‘문

1) 이 글은 김지영(2009), <문학 개념 체계의 계보학: 산문 분류법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를 요약하였음을 밝혀 둔다.

학'은 음악, 미술, 연극 등의 개념과 병렬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으며, 예술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립 개념에 더 가까웠고, 미(beauty)나 정(feeling)보다는 도(道, truth)나 리(理, reason/principle)를 추구하는 개념이었다.

2

전통적으로 문(文)이나 문학(文學)은 그 의미의 범위가 아주 넓어서 문화와 전적(典籍)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중국의 경우, 주진 시대까지 문(文)과 학(學)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즉, 문학은 “문장과 박학의 이의(二義)를 겸유한 광막 무한한 개념”으로서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경향에 다분히 치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한 시대에 문장(詩), 사부(詞賦)처럼 문체가 있는 작품과 문학(학술 저작)이 분리되고, 위진 시대에 문(文)(운(韻)이 있는 글)과 필(筆)(운(韻)이 없는 글)이 구분되면서 화려한 변문이 유행하였지만, 수당·북송 시대에 고문이 부흥되면서부터 성현의 사상이 문학을 논하는 표준이 되고 문이재도(文以載道), 문이관도(文以貫道)의 문학관이 정착되기 시작한다. 문이재도(文以載道), 문이관도(文以貫道)의 이념 아래서, 문(文)은 도(道)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격하되기도 했지만 도(道)가 스스로를 구현해 낸 실체로 숭상되기도 했다.

조선 사회에서 한문을 진언(眞言)이라 일컬었던 것은 문(文)과 도(道)의 이 같은 견고한 유대 관계를 반영하는 명명법이었다. 문(文)이 성현의 도(道)를 재현한 실체이고, 성현의 도를 익히고 체득하는 것을 학(學)으로 간주하는 사유의 지평 위에서, 문(文)과 도(道)와 학(學)은 서로가 서로를 매개하는 소통과 통합의 체계 위에 놓여 있었다.

‘文 ∞ 道 ∞ 學’의 이념 아래서 문(文)이 천지의 발현으로 이해되었던

만큼, 전통 사회에서는 글의 바른 형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선진 시대부터 만청대까지 발간된 수많은 문체론 서적들은 적게는 11류, 13류에서부터 많게는 84류, 127류에 이르기까지 글의 종류(문체)를 분류해 내고 각 문체에 최적의 양식을 정식화하려 했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문(文)은 경전의 가르침과 같은 보편적 질서의 자연적 재현이어야 했으며, 이 질서에 대한 요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조령이나 비문으로부터 논리적인 논문과 변문, 인물의 전기나 시적인 사부에 이르기까지 글을 통한 소통 활동의 세부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관직 사회에서 사용되는 주의, 조령, 잠명, 송찬과 같은 실용문은 문체의 범주에 포함되는 반면 한글로 쓰인 이야기나 향간에서 유행하는 지괴(志怪), 희곡, 패설 등은 아예 문체론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거나(지괴, 희곡) 잡기(雜記)의 말단에 편입(패설)될 뿐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괴, 희곡, 패설이 성인의 도(道)와 무관한 비속한 글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세의 문학 개념은 도(道), 문(文), 학(學)의 이념적 중심 하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문(文)에 대한 요구가 실용문에서부터 역사 기록에까지 폭넓게 미치는 가역적 체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팽배하고 고문에서부터 자유로운 소품문이 유행하면서 고문 중심의 글쓰기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쓰기 형식이 나타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근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청일 전쟁 전후로부터 중화주의 사상이 비판되고 한자가 외국어로 인식되면서 고유의 언어인 국문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탓이다.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가 근대적인 대중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언(한

문)과 언문(한글)의 위계가 전도되면서 글을 쓰고 읽는 체계는 전폭적인 변화를 맞는다. 국한문 내지 순국문 쓰기를 주장했던 신문과 잡지들에서 글은 전통 문체론이나 경, 사, 자, 집의 이념적 구도와 달리 의사 전달의 목적에 따라 분류되었다. 신문은 〈연설〉, 〈관보〉, 〈잡보〉, 〈광고〉의 체제를 기본으로 편성되었고, 잡지는 〈연단〉(논설), 〈학해(學海)〉(학문), 〈사전(史傳)〉(역사 전기), 〈문원(文苑)〉(한문), 〈사조(詞藻)〉(한문), 〈잡보〉(기타)의 6부 체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실제 글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일례로 〈연설〉(논설)란에는 연설체, 토론체, 대화체, 기사체, 일화체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실렸고, 실린 글들이 반드시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신문 잡지의 글 분류나 명명법은 글이 실리게 될 위치의 명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글의 내용과 형식의 상관성을 고려한 장르적 구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미디어의 변화라는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서구 지식의 수용은 ‘文^文道^道學^學’의 상호 매개적 개념 체제를 해체시켰다.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학문과 문학의 분열 현상이다. 근대 계몽기에 ‘문학’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미로 중첩되어 쓰였다. 문학은 첫째(A), 문자, 식자, 문장의 의미까지를 포함하여 글자로 쓰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둘째(B), 지식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셋째(C), 지식 가운데서도 수준 높은 내용을 담은 언어 표현물로서 상대적으로 오늘날의 문학에 가까운 것들까지 포괄하는 말이었다. A와 B가 ‘학문’이라는 용어 자체의 이중적 의미와 일치한다면, C는 학문의 일 분과 내에 위치한 분과명으로 더 축소되어 따로 ‘순문학’(D)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00년대까지 ‘문학’이 시가, 소설, 희곡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소설, 연희(희곡) 등은 조선 후기부터 점차 그 개념 범주가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전대의

것을 계승한 전(傳), 사기(史記)나 인물고 등이 소설로 그대로 일컬어졌던 것에서 알 수 있듯 한 장르를 형성해 가는 도정에 있었고, 역으로 역사, 전(傳), 논설 등은 계몽 의식의 확산에 유력하다는 이유로 서사적 요소의 도입이 장려됨으로써 언어 예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소설, 시가, 연회가 풍속 계량과 교화에 가장 적합한 글이라고 인식되었을 때 이들의 문학적 가치는 계몽의 기획에 부응하는 역사, 전, 논설의 가치와 그리 먼 것이 아니었다. 부국강병과 국민 국가 건설이라는 계몽의 요청에 모든 글이 강력하게 이끌려 갔고, 그러면서도 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던 소설, 희곡 등에 대한 자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만큼, 계몽이라는 구심력과 개별 장르화의 원심력 사이에서 문학 개념은 동요하고 있었다.

4

문학이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문학의 가치》, 1910)이며 “모 사물을 연구함이 아니라 감각함”으로써 “人으로 하여금 미감과 쾌감을 發케 할 만한 서적을 作하는” 일(《문학이란 하오》, 1916)이라는 이광수의 정의가 문학에 대한 인식의 틀이 근대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정의(知情義)라는 인간 정신의 삼분법을 기초로 하여, 이광수는 문학을 지(知)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학과 의(義)의 만족을 추구하는 윤리와는 분립된 “人的 情을 만족케 하는 서적”이라고 선언했다. ‘정’과 ‘미’·‘쾌’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요구로부터 개인을 독립시키고, 감각하고 욕망하는 주체로서 개인의 가치를 자각함으로써, 내면적 존재로서의 자기표현에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학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정’의 독립성과 ‘미’의 가치에 의해 문학 개념 D는 여타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이론화할 수 있는 논리와 위상을 획득한다. 때마침 이 시기는 1900년대까지 식산흥업(공예)과 서화, 예술의 의미까지를 포괄하던 ‘미술’이라는 용어가 국가라는 최종 심급을 상실하면서, 형성 중에 있던 정체성의 축을 잃어버리고, 예술이라는 상위 개념에서 분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정을 만족케 하는’ 문학은 미술, 음악과 병렬하는 미적 영역의 일부이자 과학·윤리와 대등한 영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인이 서적으로부터 얻는 모든 지식은 문학”²⁾이라거나 “문학의 본령은 순문학이라 하는 시가, 소설, 서사문, 서정문 등과 잡문학이라 하는 서술문, 평론문 등”³⁾이라는 식의 문학 B 개념이 광의의 문학 개념으로서 미약하나마 여전히 명맥을 유지했다. 이광수 역시, 문학의 하위 개념으로 시, 소설, 극(희곡)과 더불어 ‘논문(에세이)’을 거론하면서, 칼라일, 에머슨의 서적이거나 고전 한문 문장들을 문학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문학을 지의(知義)의 영역과 분립시켰던 그 자신의 논지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문학의 개념을 정초했던 지/정/의, 진/선/미의 분립적 병행론은 각각의 가치들이 다른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기보다는 상호 대립하는 배타적 범주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지/의의 영역에 걸치는 글쓰기들을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마련할 수 없었다. 논문과 같은 내부 속의 외부가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의 문학론은 문학으로부터 진리성과 윤리성을 배제한 결과, 삶과 더불어 운동하는 다양한 글쓰기들을 문학과 접속시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었다.

2) 최두선(1914), 문학의 의의에 관하여, 《학지광》 3, 26쪽.

3) 안확(1915), 조선의 문학, 《학지광》 6, 64쪽.

광의의 문학 개념이나 논문(에세이)과 같은 중립적 지대는 1920년대 까지 그 문제성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920년대 동인지 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시, 소설, 극(희곡)을 가능하게 하는 글 쓰기의 형상성이었다. ‘묘사’와 ‘재현’의 사실성을 획득하는 것이 문학 근대화의 우선적인 과제였고, 문학의 실천적·이론적 과제였다. 작자의 감정은 독자의 감정 이입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는⁴⁾ 한 비평에서처럼 말하기(telling)보다는 보여 주기(showing)의 성공이 문학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한편, 동인지는 최초로 문종에 대한 예민한 의식들을 드러냈다. 《창조》를 비롯한 1920년대 동인지들은 시, 소설, 희곡, 상화, 감상, 기행, 번역, 평론, 론, 감(感), 산문 등으로 개개의 글에 문종을 표기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보여 준다. 그러나 문종 분류의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사한 종류의 글들이 때로는 감, 감상, 상화, 산문 등으로 다채롭게 표기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최초로 문종을 일일이 명명한 독본인 이운재의 《문예독본》(1933)에는 동화, 사화(史話), 동요, 소품문, 편지, 수필, 논문, 감상문, 기행, 스케치, 신시(新詩), 송(頌), 일화, 단평, 평론, 해제(解題) 등 다양한 명칭들이 범람하지만, 단순히 모범적 문장에 임의적 명칭을 부여한 데 그칠 뿐, 일관된 기준이나 체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비허구 산문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진 것은 1930년대 수필 창작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부터였다. 수필 논의에 이르러 근대 문단은 비로소 시, 소설, 희곡의 협소한 장르 체계를 벗어나 수필을 필두로 하여 “기행이니 일기니 이른바 기록 문학이니 하는 따위들”⁵⁾도 문학에

4) 주요한(1920), 장강 어구에서, 《창조》 7, 54쪽.

5) 김기림(1988), 바다와 육체, 《김기림 전집 5》, 심설당, 169쪽.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과학자가 과학을 말하는 정치가가 정치를 말하든 (……) 대상이 무엇임을 막론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심경이 전 인생 위에 확충되어 있기만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문학적 가치를 갖게”⁶⁾ 된다는 생각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허구적 산문의 형상성에 맞서 “자기의 인간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표현하는 문학”⁷⁾으로서 수필은 작가 내면의 직접적 고백(telling)에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과학 지식과 사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쓰기를 문학의 영역 안에 포괄할 수 있는 개방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수필론과 연계하여 중세 문장들의 문학적 가치가 재조명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1930년대의 수필론은 타 장르의 형상성에 비견되는 미적 가치를 오직 미문에서만 발견한 결과 ‘서정적 산문’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수필의 영역을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만다. 이태준이 일기, 서간문, 감상문, 서정문 등 10종의 문류 말단에 수필을 위치시킨 것과 같이, 수필은 비허구 산문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미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서정성과 미문주의에 의해 규정되는 협소한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수필은, 문학 개념 내부 속의 외부이자 제도 밖의 제도로서 비허구 산문들을 미적, 문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지만, 이를 이론화하고 재체계화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의문문, 기서문, 고어문과 같은 한문의 문장이나 기사, 논설, 학술논문과 같은 다양한 글들은 문학 개념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6) 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 《동아일보》, 1939. 3. 14.

7) 김진섭·이현구 대담, <수필 문학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 1. 1.

문학 개념의 근대화 과정은 ‘문, 도, 학’, 혹은 글과 진리와 주체가 서로를 매개하고 고양시키는 통합의 구도로부터 문학이 자율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개념의 분화 및 논리적 배치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와 적극적으로 길항했던 중세의 가역적 산문 체계가 해체되고, 시, 소설, 희곡 등 형상성을 중심으로 한 하위 개념 체계가 성립하면서 문학은 설의문, 논변문, 기서문 등 중세에 문(文)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던 수많은 문종들을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추방했다. 문학이 자신의 독자적 위상을 마련하기 위해 진리와 윤리에 대한 관심을 괄호로 묶어 배제했던 것은 범주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였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진리와 윤리에 대한 관심에 천착하는 다양한 글쓰기들 역시 미적이고 문학적인 언표 속에서 탐구되고 사유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하고 배제했던 것들을 다시 문학적 사유 안으로 끌어들이고, 삶과 가치와 형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쓰기들을 미적, 역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개방적 문학에 대한 상상이 요청된다.

참고 문헌

- 김지영(2009), 문학 개념 체계의 계보학: 산문 분류법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 소설의 기원》, 소명.
- 김동식(1999),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경호(1998), 《한문 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진필상 저, 심경호 역(2001), 《한문 문체론》, 이회.